

하루를 시작하며



한 상희
서귀포중학교장·교육학박사

3월의 제주, 돌담 아래와 발두렁 사이에서 수선화가 고개를 든다. 겨울 내내 땅속에서 시간을 견디다 기운이 조금만 오르면 조심스레 얼굴을 내미는 꽃이다. 충분히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을 때, 스스로의 시간이라 판단하면 피어난다. 나는 이 작은 꽃의 결단 속에서 나의 결단을 본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을 꿔다. 바닷물에 손을 담갔는데 뼈들이 손끝에 닿았다. 그 뼈들을 하나씩 건져 공동묘지 무덤 옆 비석 위에 올려

삼만의 자리에서

놓고 깨어났다. 아침에 어머니께 꿈 이야기를 했더니 말씀하셨다. “네가 외할아버지 꿈을 꿔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 어머니가 4·3 당시 여덟 살 아이였다는 사실을. 불타는 마을을 바라보던 두려움, 아버지 없는 삶의 그리움, 친척 하나 없이 자라야 했던 고독. 그 감정의 무게는 어찌하면 한 사람이 평생 살아 올린 시간과 맞먹을지도 모른다.
꿈을 꾸는 날, 나는 결심했다. 그 아이에게 한 오라기의 슬픔이나 한 톨의 외로움도 더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머니는 그 모든 시간을 여덟 살의 몸으로 견뎠다. 소녀는 자라헤려가 됐고, 시장의 상인이 됐으며, 여덟 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나는 여덟 살 소녀가 다시 삼

만의 회복을 향해 걸어온 시간의 연장선 위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날 이후 4·3은 교과서 속 사건이 아니라 나의 현재가 됐다. 삼만 명이라는 숫자는 삼만개의 얼굴이 됐고, 삼만개의 하루가 됐다. 죽음은 생명만 빼앗지 않았다. 다정한 밥상, 더 자란 아이들의 키, 이어졌을 노동과 사랑, 갈등과 화해, 젊음과 나이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평범한 하루는 끝내 살아보지 못한 그들의 하루 위에 놓여 있다.
작년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한때 말해지지 못했던 이름과 사건, 사라졌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세계가 함께 직면해야 할 기억이 됐다. 그것은 진실 규명과 회복의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이며, 침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증언이다.

수선화처럼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견디다 끝내 꽃으로 피어나는 과정이다. 그러나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기억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은 질문을 남기고, 그 질문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어떤 선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 기록은 과거의 문서로 남을 수도 있고, 오늘의 삶이 될 수도 있다.
아침 산책길, 다시 수선화 앞에 선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고개를 드는 작은 꽃 하나. 오늘 아침, 나는 다시 삼만의 자리에 선다. 꽃이 지고 말이 끊겼던 자리에서 다시 꽃이 핀다.
나는 삼만의 하루 위에 서서, 어떤 선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설

불법 산림훼손 심각... 전방위적 단속 필요

불법 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암암리에 산림 훼손을 일삼고 있어 철저한 감시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림 불법 훼손은 154건이다. 피해규모는 총 57.8ha다. 축구장 8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산림 피해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산지전용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사야적·지반정리·자연석 채취 등 기타 17건, 무허가 벌채 14건 순이다. 피해 면적은 불법 산지전용이 가장 컸고 무허가 벌채가 뒤를 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무허가 벌채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법 산지전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농지조성과 농로·임

도 개설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농지를 임의로 조성하거나 이동의 편리를 위해 농로와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처벌이 미약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산림훼손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수반한다. 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감시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산지전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농지조성과 농로·임

열린마당

‘불법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주의 안녕을 지킨다



공 태웅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에서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중대 위반에 따른 입건 4건, 과태료 부과 1건, 그리고 즉각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명령 50건이 집행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다음의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먼저 허가받지 않은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 휘발유, 경유 등을 무단으로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 유류는 반드시 검사를 통과한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장 장소는 유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환기해야 한다.
단순한 단속과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 변화다. 제주소방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주요취급소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글로벌 석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제 유류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우리 도민의 가계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유류 사용량이 많은 도내 산업 현장과 농가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제주소방서는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지역 내 위험물 시설 218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뉴스-in

서귀포시 “국제 곡물가 상승 선제적 대응”

사료 구입비·물류비 등 지원 “현장 중심 맞춤형 연수 운영”
○...서귀포시가 최근 중동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와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며 주목.
시는 7개 사업에 예산 24억 4300만원을 투입해 ▷조사료 종자 구입비 (ha당 12만원) ▷사일리지 제조 경비 (t당 6만3380원) ▷배합사료 물류비 (kg당 30원) 및 도내 조사료 물류비 (롤당 5000원) ▷감귤박 혼합사료 구입비 (포당 1000원) 지원사업을 추진.
문혁 축산과장은 “중동분쟁에 따른 사료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사료비 절감 사업이 서귀포지역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 백금탁기자

○... 제주도내 학교 현장에서도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탐라교육원이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예고.
탐라교육원은 올해 도내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획형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 직무연수’ 11개 과정과 ‘찾아가는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 직무연수’ 9개 과정을 계획했으며, 사회복지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올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반영하기로 결정.
탐라교육원은 “공직자의 사회복지 이해도와 사회적 약자 배려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김지은기자

반복되는 제주 밭작물 위기 대책 세워야

제주 월동채소류가 가격 폭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관광산업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1차 산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가격 하락은 농산물 가격 변동의 문제를 넘어 제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키운다.
올해 제주산 양배추와 조생양파, 월동무 등은 전년에 견줘 생산량이 30% 안팎 증가한 데다 소비 침체까지 더해지며 가격이 폭락 수준이다. 양배추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제주에서 가장 먼저 출하되는 조생양파 역시 지난 23일 첫 경매부터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격 하락에 조생양파 농가가 농산물 출하를 미루며 눈치작전을 벌이는 상황은 실로 안타깝다. 생산량이 30% 안팎 증가했

는데, 일부 물량을 저장하거나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보인다.
도내 밭작물 가격의 하락은 올해뿐만 아니라 자주 되풀이돼 왔다. ‘다품목 소량 생산’이 아닌 ‘소품목 대량 생산’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제 단기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밭작물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확한 생산량 예측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수급조절 시스템과 가격안정 장치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또 원물 판매에 치중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가공·수출을 아우르는 중장기 유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농가들이 가공 시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가공 전문교육과 공동 사용이 가능한 가공지원센터, 판로 걱정을 덜어 줄 직매장 설치 등 종합적인 밭작물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명★택일★사주★운세★상담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철학원 창업반(통변증심)
※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릉2리 응암동길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